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2012년 9월 2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동남아협력과 양기욱 과장(2110-4621), 이수부 사무관(2110-4623)	

동남아 新유망시장 미얀마와 산업자원협력 강화

□ 지식경제부는 민관 합동 정부대표단(수석대표 :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)을 파견하여 한-미얀마 산업협력포럼을 열고, 제6차 한-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미얀마 에너지·자원 관련 부처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

○ 미얀마는 한반도의 3배의 넓은 국토, 6천만의 인구,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며, 최근 개혁과 개방 조치로 경제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음

* 참가자
  - 한국측 : 지식경제부, KOTRA, 광물자원공사, 석유공사, 광해관리공단, 지질자원연구원, 해외자원개발협회 및 기업인 등 총 80여명
  - 미얀마측 : 에너지부 차관, 광업부, 전력부, 미얀마투자위원회, 미얀마상공회의소 등 정부부처 및 기업인 80여명

□ 9.24일 양곤에서 개최된 한-미얀마 산업자원협력포럼에서 문재도 실장은 한국과 미얀마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로서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미얀마의 풍부한 자원과 발전 잠재력과 결합하는 협력관계를 발전해 나갈 것을 제안

○ 우 쪼소(U Kyaw Soe) 양곤주 산림.에너지 장관(Ministry of Forest & Energy of Yangon Divison) 및 우 윈 아웅(U Win Aung) 미얀마상공회의소 회장도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하며 미얀마에 대한 더 많은 투자진출을 요청함

○ 이날 포럼에서 한국은 전자정부 등 IT, 섬유, 플랜트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으며, 미얀마측은 미얀마의 투자제도와 IT 산업 현황을 참석 기업들에게 소개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음.

□ 9.25일 네피도에서 미얀마 에너지부 띤 아웅(Htin Aung) 차관과 제6차 한-미얀마 자원협력위를 개최하고 양국간 공통 관심사항인 석유·가스, 전략 광물자원, 광해관리, 전력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

○ 양측은 한국기업(대우인터내셔널·한국가스공사)이 주도적으로 탐사하여 대규모 가스전 발견에 성공한 미얀마 A1 및 A3 해상광구 개발이 한-미얀마간 에너지·자원 분야의 성공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한국석유공사의 미얀마 석유.가스 광구 개발 참여 가능성을 협의하였음

* 대우, 가스공사, '04~'06년 미얀마 A-1, A-3 광구에서 3개(Shwe, Shwe Phyu, Mya) 대규모 가스전 발견(4.5tcf, 천연가스 3년치 국내 도입량 규모), '13.5월 상업생산(5억cfd) 예정

○ 아울러, 석유가스 분야의 협력에 비해 그간 협력이 부진하였던 광물자원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함

- 이를 위해 광업 기관간 인적교류 및 광물자원 정보 공유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, 투자로 이어지는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

○ 또한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암모니아 설비 투자에 대하여 상호 가능성을 협의함

○ 전력분야에서는 미얀마의 시급한 과제인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한국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국간 노력하기로 합의

* (추진중인 발전 프로젝트) 양곤 가스복합발전소, 양곤 북서부 마니푸라 수력발전소

□ 한편, 이날 오후 문재도 실장은 우 딴 떼이(U Than Htay) 미얀마 에너지부 장관 및 우 떼인 툰(U Thein Tun) 우정통신부 장관을 만나 에너지·자원 및 IT 분야의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미얀마 진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음.

1. 한-미얀마 산업협력 포럼

□ 행사명 : 한-미얀마 산업협력 포럼
- 영문명 : Korea-Myanmar Industrial Cooperation Forum 2012

□ 개최일시 : 2012. 9. 24(월) 09:00 ~ 12:40

□ 개최장소 : Ballroom2, Chatrium Hotel

□ 참석자 : 약 150명

○ 한국 : 투자사절단 및 자원협력위 참가자 약 70명
○ 미얀마 : 미얀마 양곤주지사, 주요기업 등 80여명

□ 행사순서(잠정)

시간 (분)	내용	비고
08:30~09:00 (30)	등록	
09:00~09:10 (10)	개회사 및 축사	KOTRA/지경부 양곤주지사
09:10~09:30 (20)	미얀마 투자환경과 진출방안	미얀마 투자위원회
09:30~09:50 (20)	미얀마 정보화 현황과 비즈니스 기회	미얀마 컴퓨터협회
09:50~10:05 (15)	한-미얀마 정보화 협력 방안	정보통신산업진흥원
10:05~10:20 (15)	전자정부 구축 협력방안	삼성SDS
10:20~10:35 (15)	IT Solution 소개 및 협력방안	문엔지니어링
10:35~10:50 (15)	모바일 응용시스템 사례	인터젠코리아
10:50~11:10 (20)	Coffee Break	
11:10~11:30 (20)	미얀마 비즈니스 기회와 협력방안	미얀마 상공회의소
11:30~11:50 (20)	한국의 섬유산업 현황과 협력방안	한국섬유산업연합회
11:50~12:10 (20)	한국의 플랜트산업과 협력방안	한국플랜트산업협회
12:10~12:40 (30)	Q&A	
12:40~14:00 (80)	오찬 및 네트워킹	Chatrium Hotel(KOTRA)

2. 제6차 자원협력위 개요

□ **일시/ 장소 : 2012. 9.25(화) 09:00-12:30/ 네피도 에너지부 회의실**

* 회의 종료 직후 U Than Htay 장관 면담

□ **참석자**

○ 우리측(36명) : **지경부(산업자원협력실장**, 동남아협력과, 광물자원팀), 석유공사, 광물공사, 지자연, 광해공단, 해자협, 서부발전, 한신공영, 롯데, 대우, 태광(휴켐스), 미산 등 27명, 경제사절단 9명(보성파워텍, 대우건설, 아거스, 그린오션, 유니온엔터프라이즈, 플랜트협회)

○ 미얀마측(10여명) : U Htin Aung **에너지부 차관**, 광업부, 전력부

□ **주요 의제**

① 석유·가스분야 : A1, A3 해상 가스전 개발 현황, 신규광구 참여
암모니아 생산설비 건설

② 광물분야 : 광물자원 공동개발, 기초지질조사, 광해실태조사

③ 전력분야 : 가스복합 및 수력발전소 건설

④ 기타 : 민간협회 차원 양국간 에너지·자원협력

3. 에너지부 장관(Than Htay) 면담

□ **일시/ 장소 : 2012. 9.25(화) 12:15/ 네피도 에너지부 회의실**

□ **주요 협의내용**

○ 한국석유공사 등 한국 E&P 기업들의 광구개발 참여

○ 민간협회 차원의 양국간 협력채널 구축

○ 제2차 국제에너지협력 심포지엄 초청

* 11.20, 서울 개최, 에너지부장관 혹은 광업부 장관 대상 초청

○ 암모니아 제조 설비에 필요한 천연가스 공급 여부 타진

4. 우정통신부 장관(Thein Tun) 면담

□ 일시/ 장소 : 9.25(화) 16:00 / 네피도 우정통신부

□ 주요 협의내용

○ IT 분야 협력

○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전타당성조사 설명 및 양해각서 제안(NIPA)

5. 광업부 장관(Dr. Myint Aung) 면담

□ 일시/ 장소 : 9.26(수) 09:00 / 네피도 광업부

□ 주요 협의내용

○ 정부간 포괄적 광물자원협력 제안

○ 광물자원공사, 지자연, 광해관리공단 진출 협력

○ 민간협회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

○ 광산 투자 애로사항 해소 협력

참고 1 미얀마 약황

【 일반사항 】
o 수 도 : 내피도(Nay Pyi Taw, 인구92만명)
o 인 구 : 5,838만명(09년 추산)
o 면 적 : 67.8만㎢(한반도의 약 3배)
o 민족구성 : 버마족(70%), 소수족(25%, 카친, 카렌족 등), 기타(5%, 중국, 인도 등)
o 종 교 : 불교(89.3%), 기독교(5.6%), 회교(3.8%), 힌두교(0.51%)
o 언 어 : 미얀마어(공용어), 영어
o 시 차 : 우리시간 -2.5
o 환 율 : (공식) 1US$ = 6짜트
(시장) 1US$ = 770짜트(11.6월 평균)

【 정치현황 】
o 정부형태 : 대통령중심제
o 국가원수 : Thein Sein(떼인 세인)

【 경제현황 】 ('10년)
o GDP : 316억 불
o 1인당 GDP : $543
o 실질 경제성장률 : 3.3%
o 외환보유고 : 37.6억불
o 교 역 : 131.2억불
- 수출 : 88.2억불
- 수입 : 43.0억불
o 석유·가스, 광물, 농수산, 산림 자원 등이 풍부하나, 농업 위주의 산업정책 추진, 인프라 기반 취약 및 자본부족, 규제행정 만연과 제도 미비 등 경제개발의 장애요소 상존
o 03.7 미국의 제재 강화의 여파가 나타난 06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세
o 외국인 투자는 석유, 가스 등 자원개발 분야에 국한(주로 중국, 인도)

【 우리나라와의 관계 】
o 수교일자 : 75.5.16
o 공관현황 : 상주 대사관 설치
(현 김해용 대사 11.3 부임)
o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(10년, 한국기준)
- 총교역 : 6.4억불
- 수 출 : 4.8불(철강제품, 산업기계, 직물, 석유화학제품 등)
- 수 입 : 1.6억불(광물성연료, 섬유제품, 목재, 농수산물 등)
o 투자 현황(11.6년, 한국·신고기준)
- 對미얀마 : 40.0억불
· 미얀마 진출기업: 100 여개(50여 봉제업, 가스전 개발, 기타 무역, 목재 등)
- 對한국 : 109만불
o 건설수주 현황(10.3 누계): 15.2억불
- 10.2 현대중공업, 대우인터내셔널 SHWE 가스전 공사 수주(13.9억불)
o 개발원조 현황
- 무상원조(91-09) : 2,887만불
- 유상원조(92-04) : 6건, 8,470만불
o 우리교민 현황(10년) : 약1,000명
o 미얀마인 체류 현황(09년말) : 4,555명
o 인적교류 현황
- 방미얀마 : 7,966명(08년)
- 방 한 : 13,809명(09년)
o 최근 주요인사 교류 현황
- 05.5 Nyan Win 외교장관 방한
- 05.6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방미
- 06.5 Kyaw Thu 외교1차관 방한
- 07.6 Maung Myint 외교2차관 방한
- 08.5 김성환 외교2차관 방미
- 09.1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방미
- 09.3 Maung Myint 외교차관 방한
- 09.6 Thein Sein 총리 방한 (한·ASEAN 특별정상회의 참석)
- 10.2 박영준 국무차장 방미
- 10.12 박영준 차관 방미
o 북한과의 관계
- 75.5 수교, 83.10월 아웅산 사건으로 단교, 07.4 복교 이래 군사협력 중심 관계 강화 중
- 김석철 대사, 07.12월 신임장 제정

【 주요 국내정세 】
o 88.9 군사 쿠데타 발생
o 90.5 실시 총선에서의 야당(NLD) 압승에도 불구 군정은 민정이양 거부
o 03.8 민주화 7단계 로드맵 발표
o 04.5, 05.1, 05.10, 06.10-12, 07.7-9 국민회의 개최 (신헌법안 세부원칙 논의)
o 07.9 정부의 유가상승 조치로 촉발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 발생
o 08.5.10 헌법초안 국민투표 실시
- 투표율 98%, 찬성률 92.5%로 채택
o 09.8.11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연금지침 위반 유죄선고(가택연금 18개월 연장)
o 09.9 이후 7,114명 사면시 정치범 120여명 포함(상금 2천여명 정치범 존재),
군정-수지간 대화, 수지-서방 외교관·NLD 간부간 면담 허용 등 대내외 유화조치 실시
o 10.3 공포된 선거 관련법에 대해 최대 야당 NLD는 수지 여사의 선거참여 배제 등 부당성을 지적하며 보이콧 선언
o 10.11 총선 실시
o 11.4.1 신정부 출범

참고 2 한-미얀마 무역 · 투자 현황

1. 무역 현황

□ 미얀마내 산업기반 부재, 한국기업의 진출 부진, 수출입 허가제 등으로 한-미얀마 교역규모는 '11년 9.7억불 수준으로 미미

* 동남아 교역규모('11년, 억불): ①인니(308), ②싱가포르(298), ③베(186), ④말련(167)

○ 한국의 對미얀마 수출은 '11년 6.7억불(전년 대비 39.3% 증가), 수입은 3억불(전년 대비 86.8% 증가)로 큰 폭으로 성장

○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, 양국간 교역은 최근 5년간 4.5배 증가

< 한-미얀마 연도별 교역 현황 >

(단위 : 백만불, %)

구 분	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.7
수출	금 액	120	121	292	244	406	479	667	330
	전년대비 증가율	-25.9	1.1	140.7	-16.5	66.6	17.9	39.3	-14.9
수입	금 액	56	96	81	116	78	160	299	157
	전년대비 증가율	86.9	71.4	-16.3	44.1	-32.6	104.1	86.8	28.0
무역규모		176	217	373	360	484	639	966	487
무역수지		64	25	211	128	328	320	368	173

□ 한국의 對미얀마 수출 품목은 건설중장비, 철강금속 제품 위주이고, 수입 품목은 의류가 대부분, 기타 농산물 등 1차산업 생산물 위주

○ '11년 수출은 건설중장비(산업기계) 및 철강제품, 봉제 원부자재, 석유화학제품 등 산업용 원부자재 중심으로 수출

○ '11년 수입은 봉제산업(미얀마의 주요 수출제조업) 생산물인 섬유제품이 77.9%로 대부분을 차지

< 한-미얀마 품목별 교역현황 >

(단위 : 백만불, %)

순위	수출('11.1~12월)			수입('11.1~12월)		
	품목명	금액	전년대비 증가율	품목명	금액	전년대비 증가율
1	산업기계	166	55.4	섬유제품	233	87.4
2	철강제품	147	-0.4	농산물	41	106.6
3	직물	74	109.0	임산물	16	66.5
4	수송기계	37	242.0	신변잡화	5	91.2
5	석유화학제품	36	73.2	수산물	2	6.0
	계	460		계	297	

2. 투자 현황

□ 한국의 對미얀마 투자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**한국은 미얀마 내에서 제4위 투자국**

* ① 중국 : 139.5억불(34.5%), ② 태국 : 95.7억불(23.7%), ③ 홍콩 : 63억불(15.6%), ④ 한국 : 29.4억불(7.3%) ('11년말 누계 투자허가기준, 미얀마 투자위원회)

** 한국의 對미얀마 투자중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전 투자가 22.7억불(77.2%) 차지

***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로 본 '11년말 누계 신고기준 총 투자금액은 41억불 규모, 이중 실제 투자금액은 10.7억불

○ '11년말 현재,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은 총 178개* 업체

* 제조업 69개, 서비스업 46개, 유통·물류 15개, 농림수산업 6개, 건설업 5개, 자원개발 3개, 기타(업종 미파악) 34개 등

□ 미얀마 가스전(전체 투자의 약 85% 점유)외 한국의 대표적인 미얀마 투자는 '90년 세계물산을 필두로 시작된 **봉제업**

○ 현지 봉제협의회에 따르면 한국 진출업체는 약 50여개, 한국 봉제업계 종사자는 약 4만명으로 미얀마 전체 봉제업 종사자의 절반 차지

* 주요 봉제업체 : 대우봉제, 제우, 태평양물산, 세계물산 등

○ 최근 중국진출 봉제업의 경영난으로 인해 미얀마로의 공장이전 및 투자진출을 모색하는 업체 증가 예상

* 현지진출 봉제업 대부분은 현지인 명의 이용 등의 이유로 투자통계에 미반영

□ 일반 제조업으로는 포스코 아연도금강판(함석지붕재), 대우목재(합판), 대상(PVC 파이프) 등이 있으며, 기타 소규모 무역업체 다수

* 소규모 업체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절차를 밟지 않고 미얀마인 명의로 기업 활동

< 한-미얀마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 : 백만불, 건)

구 분		'05	'06	'06	'08	'09	'10	'11	'12.6	누계주)
對미얀마 투자	금액	0.8	0.5	18	50	3,533	233	109	5.5	4,137
	건수	2	5	6	1	8	10	20	2	160
對韓 투자	금액	0.1	0.2	0.2	0.2	-	0.1	-		1.2
	건수	2	4	3	3	-	1	-		23

주) 對韓 투자 : '99년~'11년, 對미얀마 투자 : '90년~'12년 6월